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1분기 GDP 발표·23개 지역 모두 플러스 성장 그중 19개(80%) 평균 이상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4.8% 성장한 27조 위안(약 5,127억원)이며, 4월 24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23개 지역 모두 플러스 성장세로, 이 중 19개 지역의 GDP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함
- GDP 총량은 산둥, 허난, 쓰촨, 푸젠, 후난, 후베이, 안후이 등 7개 성(省)이 1조 위안(약 190조원)을 돌파했고 GDP 성장률은 장시, 푸젠, 후베이, 구이저우, 산시(山西), 후난, 하이난 등 7개 성이 6%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장시성(江西)이 6.9%의 증가율로 1위를 기록함
- 1선 도시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 속도가 완만했으며 베이징시의 GDP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성장률과 일치하고 상하이시는 3.1%, 텐진시는 0.1%로 나타남.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서비스업이 GDP의 70% 이상에 달하는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텐진시와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가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내수 부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베이징시는 올해 도시 부중심(副中心) 건설에 1,000억 위안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문화시설, 행정사무실 등의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1분기 베이징시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0.3%에 달했고 투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 장시성은 중앙 1호 문건인 '2022년 농촌 진흥 중점사업 전면 추진을 위한 의견'에 근거하여 다양한 농업 발전 조치를 취했으며 1분기 농림어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6.6%에 달했음. 이외 '중앙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43가지 지원조치'를 활용하여 서비스업 중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1~2월 규모이상 서비스업 기업의 매출이 19.4% 증가했음
- 광대은행(光大銀行) 금융시장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현재 지역별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및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가 공급망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중소·영세기업, 민영기업, 농업·농촌·농민 등 분야의 기업지원 조치를 취하여 농산품 생산, 에너지 공급, 기업 운영, 취업 안정, 내수 촉진 등을 보장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시장요소의 유동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04-24/A1650811024098.html>

## 2 中, 지난 10년간 하이난자유무역항 및 자유무역시험구 21개소 설립

-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현판식을 가진 후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총 21개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자유무역항이 설립되었으며, 자유무역시험구는 비록 면적이 작지만 외자이용률은 전국의 18.5%, 수출입은 전국의 17.3%를 점하고 있음
- 2018년 4월 13일 개최된 하이난성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을 발표한 이래 2018~2021년 하이난성 GDP는 연평균 6.5%,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연평균 8.1%,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연평균 9.6% 성장을 보였음. 2021년 하이난성의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선두자리를 차지했고 수출입 총액은 57.7% 증가한 1,477억 위안(약 28조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수치를 36.3%p 상회함
- 베이징시는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베이징)자유무역시험구조례'를 통과시키고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동 시험구는 의료·헬스케어, 전문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관광, 항공서비스 등 산업을 장려하고 긴급 임상약품과 의료기기 통관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쓰촨자유무역시험구는 국경간 물류통로를 구축했으며, 청두상류(双流)공항은 131개의 국제 항공노선을 개통하고 청두국제철도항(铁路港)은 69개 해외도시와 25개 국내도시를 연결시켜 대외개방을 확대하였음
- 한편, RCEP 발효로 산동성은 1분기 RCEP 14개 성원국과의 교역액이 2,573억 위안(약 4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9% 증가하였으며, 산동성 해관 및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RCEP 원산지 증명서 2.4만 건을 발급하여 전국 1위를 기록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4/20/content\\_25913737.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4/20/content_25913737.htm)

## 3 中, 1분기 철강 소비량 2.35억 톤으로 9.5% 감소

- 중국 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철강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9.5% 감소한 2억 3,500만 톤이며, 철강 소비가 높은 업종의 철강 소비량은 5% 감소하였고, 이 중 건축업은 7%, 제조업은 2% 감소함
- 1분기 중국내 철강 가격은 굴곡 상승세를 보였으며 중국철강종합가격지수(CSPI·China Steel Price Index) 평균치는 135.92로 전년 동기대비 4.4% 상승함. 3월 중국철강종합가격지수는 138.85로 전월 대비 2.4%,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하였음
- 3월부터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집중 혹은 산발적 확산세로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철강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36Kr

<https://36kr.com/newsflashes/1713467427399172>

## 4 中, 2021년 인터넷 동영상 유료 이용자 수 7억 명 돌파

- 중국 국가라디오방송총국은 25일자로 2021년 전국 TV·라디오방송 분야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케이블 TV 이용자수는 2억 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반면 고화질·초고화질 TV 이용자수는 1억 9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음
- 인터넷 동영상의 유료 이용자수는 연간 7억 1,000만 명, 인터넷 오디오방송 유료 이용자수는 연간 1억 5,000만 명에 달했으며, 숏폼 동영상 게재자도 7억 명을 초과함

자료원 : 증권시보

<https://36kr.com/newsflashes/1713627150198531>

## 5 中, 남성의를류 시장 꾸준한 성장세

- 중국의 경제 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남성들이 외모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남성의를류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임. 남성의를류 관련 기업은 8.1만 개사이며, 이 중 2021년 신규 설립된 기업이 1만 개사로 증가율이 14%에 달했음
- 최근 남성의를류 브랜드인 바오시나오(报喜鸟), 치피랑(七匹狼) 등 기업들이 2021년 재무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및 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
- 남성의를류 분야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독특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으며, 이중에는 상하이, 닝보, 원저우 등지를 대표로 하는 '저파이(浙派)', 푸젠성 진장(晋江), 스스(石狮) 등지를 대표로 하는 '민파이(闽派)', 이 외 홍콩·마카오 우위를 활용한 광둥 남부 및 주강삼각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됨
- 남성의를류 브랜드는 제품, 기술, 마케팅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통해서도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남성의를류 선도 브랜드인 '하이란즈자(海澜之家)'는 최근 전통적인 생초(生肖, 띠)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후후성평(虎虎生风)' IP 의류 시리즈를 출시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남성의류 시장은 빠른 확장세를 거친 후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했으며 선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낮고 제품이 중가 시장에 집중됨. 한편 소비자들은 남성의류 구입시 브랜드, 품질, 디자인, 기능, 가성비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함

자료원 : 경제일보

[http://www.ce.cn/cysc/newmain/jdpd/fz/202204/21/t20220421\\_37515384.shtml](http://www.ce.cn/cysc/newmain/jdpd/fz/202204/21/t20220421_37515384.shtml)

## 6 中, 3월 화장품 소매판매액 및 수입액 모두 감소

- 중국 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에 따르면 3월 화장품 소매판매액과 수입액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음
- 1분기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949억 위안(약 1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했지만, 3월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345억 위안(약 6.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하였음
- 한편 1분기 화장품 및 샴푸용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9만 7,505톤, 수입액은 6.2% 감소한 347억 위안(약 6.6조원), 이 중 3월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3만 5,887톤, 수입액은 14.4% 감소한 129억 위안(약 2.4조원)으로 집계됨

자료원 : 광저우일보, DoNews

<https://www.gzdaily.cn/amucsite/web/index.html#/detail/1820983>

<https://www.donews.com/news/detail/8/3201633.html>

## 7 中 에어컨기업, 동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알루미늄재 대체 활용

- 에어컨의 주요 원재료인 동재 가격 상승으로 3월부터 중국내 주요 가전 브랜드들이 에어컨 가격을 인상함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에어컨 생산원가 중 동재 비용이 약 17%를 차지하는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재 가격이 80%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에어컨 생산원가가 20~25% 인상되었음
- 동재 가격은 2020년 6월부터 연속 18개월 이상 상승세로 하이얼(海尔), 메이디(美的), 거리(格力), AUX (奥克斯) 등 가전 브랜드가 선호하여 에어컨 출고가를 3~10% 인상했으며, 한 대당 100~500위안(약 1.9~9.5만원) 인상되었음

- 코로나19 영향, 국제무역 마찰, 화물 운송비 상승 등으로 동재와 알루미늄재 가격 상승폭은 모두 80%를 초과했으며, 이 중 알루미늄재 가격 상승폭은 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4월 15일 기준, 동재 가격은 톤당 7.5만 위안(약 1,424만원), 알루미늄재 가격은 톤당 2.1만 위안(약 399만원)으로 에어컨 생산업체들은 알루미늄재로 동재를 대체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일부 창문형 에어컨(窗机)은 이미 알루미늄재로 동재를 대체했음
- 한편 '2021년 중국 가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컨 소비는 고급화 추세를 보였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 2만 위안(약 380만원) 이상 제품 판매액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음. 공기정화 기능 에어컨, 에너지효율 1급 에어컨 등이 인기로 공기정화 기능 에어컨 판매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에너지효율 1급 에어컨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비중은 각각 59%, 70%로 나타났음

자료원 : 중국전자신문

[http://www.ce.cn/cysc/zgjd/kx/202204/22/t20220422\\_37520383.shtml](http://www.ce.cn/cysc/zgjd/kx/202204/22/t20220422_37520383.shtml)

## 8 中, 3월 원자재 가격 두 자릿수 이상 빠른 상승세로 기업 부담 가중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1분기 공업기업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해상 운송비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에너지 가격의 빠른 상승은 중국의 수입 원가를 인상시켰으며 1분기 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수입가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6.1%, 37.4%, 78% 상승함. 이로써 정제유 관련 업종이 영향을 받았고 방직업, 경공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생산원가도 동반 상승했음
- 3월 말 기준 LME(런던 금속거래소)의 동과 알루미늄 가격이 연초 대비 6.7%, 25.4% 상승했으며, 전력 장비, 경공업, 가전, 자동차, 건축자재 등 업종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에너지차에 사용되는 리튬, 니켈 등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에너지차 생산원가가 인상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리튬인산철 배터리, 삼원 배터리 가격이 각각 50%, 57.1% 상승했음. 3월 부터 광저우자동차(广汽集团), 비야디(比亚迪), 샤오펑(小鹏), 테슬라 등 신에너지차 생산업체들이 70여종 모델의 가격을 각각 0.3~3만 위안(약 57~570만원) 사이로 인상하였음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30814957887762582&wfr=spider&for=pc>